

화단 및 조경용 돌단풍 재배 이용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Aceriphyllum rossii*
native to Korea.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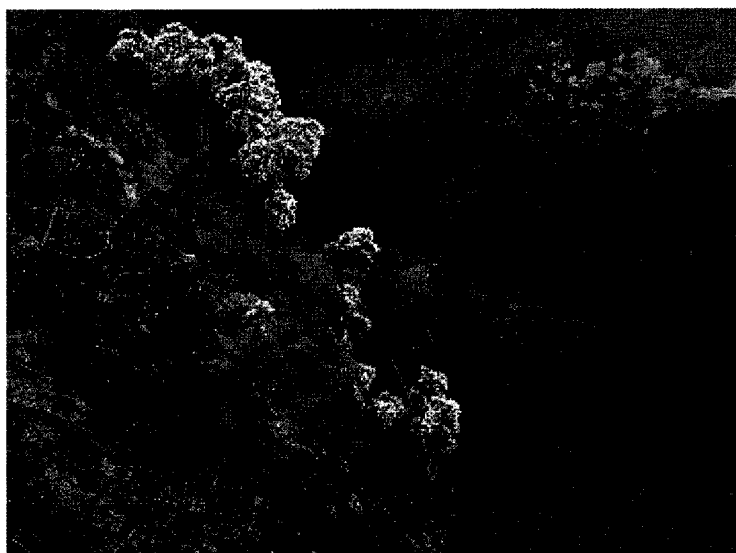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돌단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잎이 단풍나무 잎을 닮았다. 속명을 봐도 단풍나무의 'Acer'와 잎을 뜻하는 'phyllum'의 합성어로 되어있다. 5월경에 하얗게 피는 꽃도 예쁘지만 키가 작으면서 잎의 질감이 좋고 번식력도 강해 지피용으로 매우 우수하며, 특히 암석정원의 틈새같은 곳에 심으면 구조물의 고정에도 효과도 있다. 잎은 가을에 붉은 색으로 단풍이 든다. 돌단풍은 아래 사진과 같이 산이나 계곡의 물기가 많은 바위나 절벽같은 곳에 붙어 자생한다.



〈그림 1〉 돌단풍의 자생지 생육광경('03.5, 화야산)

1. 생리생태 및 이용

여러해살이풀로써 잎의 길이가 20cm정도가 다. 뿌리줄기는 매우 굵으며 옆으로 뻗는데 비늘 같은 포로 덮여 있다.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나며 잎자루가 길다. 잎은 5~7개로 갈라졌으며 끝에 거치가 있고 광택이 나며 황록색 또는 연녹색으로 신선한 감을 준다. 꽃은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피며 꽃대는 뿌리에서 나오는데 높이 30~50cm로 원추형의 취산꽃차례로 달리며 연한 붉은 색을 띠는 흰색이다. 화관은 지름 1.2~1.5cm다. 꽃받침, 잎, 꽃잎 및 수술은 각각 6개이다. 꽃받침은 긴 계란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흰색이 돌며, 꽃잎은 꽃받침 잎보다 짧다. 수술은 꽃잎보다 조금 짧다. 열매는 삭과로 되어 있고 2개로 갈라진다. 비대된 뿌리줄기에 잔뿌리가 드물게 나 있다. 변종으로 잎 열편이 12개로 갈라지는 큰돌단풍(*A. rossii* Engler var. *multiloba*)이 있다. 돌단풍은 자생지 환경을 보면 습도가 매우 높은 조건이지만 워낙 번식력이 좋아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편이다. 뿌리가 강건하여 바위정원에 심거나 일반분재 돌붙임, 인공폭포 경관석 주위에 식재하며 분화재 배도 가능하다.

2. 재배기술

가. 종자번식

돌단풍은 분주와 종자번식에 의해서 번식한다. 종자는 12시간 정도 물에 침종시켜 파종하거나 지베렐린 20~30ppm에서 20분 정도 처리한 후 그늘에서 말려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된다. 파종상토는 배수가 좋은 토양이나 인공토양 중 어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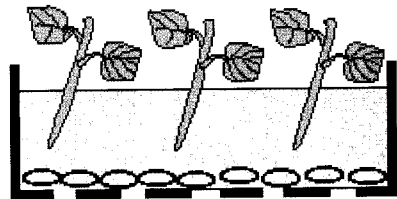
을 사용해도 된다. 묘상을 만들어 줄뿌림이나 흩어뿌림을 하기도 하나 플러그판을 이용하여 파종하면 가식 없이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나. 분주 및 삼목

분주는 3~4월 상순의 싹트기 전에 하거나 6~7월에 잎과 잎자루를 조금 붙여서 모래에 꽂아 삼목한다. 배양토는 배수가 잘되고 비옥한 것이 좋으며 물을 충분히 주어 약간 습하게 하는 것이 좋다. 광선을 필요로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고 반그늘이 적당하다. 일단 활착하고 나면 생육에 별 문제가 없으며 내습성과 내건성이 매우 강하다. 물은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를 봐가면서 보통으로 준다. 공중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신선한 잎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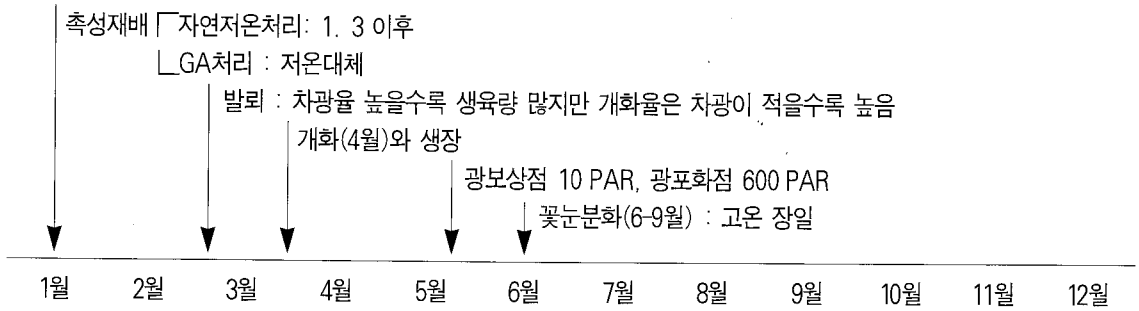
〈그림 2〉 플러그 육묘 광경



삼목

다. 정식

정식방법은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3〉 돌단풍의 꽃눈분화 및 발달과 성장에 관여하는 환경조건

돌에 붙여 심는 경우 드라이버 등으로 간단히 가공할 수 있는 화석 등을 이용하여 기호대로 가공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생지의 풍경을 그대로 재연해 낼 수도 있다. 분경을 만들 때는 다른 자생화랑 같이 심는 것이 좋다. 같이 심을 것으로는 돌단풍과 성장환경이 비슷한 양치식물 등이 좋으며 잎이 가는 종류가 잘 어울린다. 나무나 돌을 올려놓고 흙 표면을 이끼 등으로 피복하면 멋진 작품이 된다. 정원에 심을 때는 음지나 습기가 유지되는 정원석의 패인 곳에 심는다. 노지에 심을 때 주위의 식물의 생육이 너무 왕성하면 고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라. 축성재배

돌단풍의 꽃눈은 전년도에 여름에 만들어진 다. 만들어진 꽃눈은 겨울의 저온을 받으면서 보다 성숙되면서 충실해지는데, 저온이 부족하면 꽃이 빈약하게 된다. 이 저온요구 정도는 실험결과 5℃이하를 기준으로 40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저온은 지베렐린 처리로 대체되기도 한다. 돌단풍의 꽃눈분화 및 성장환경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마. 시비

정원이나 화단에서는 부엽퇴비를 살포하거나 심기 전 토양 속에 유기질의 경단비료를 넣어 주고 생육 중에는 4중복비 1,000~1,500배액을 월 3~5회 정도 앞에 뿌려주고, 화분에 기를 때는 환 형태로 만들어진 유기질 비료를 적당량 놓아 둔다.

바. 병해충 방제

병해충 피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너무 과습하면 지제부에 연부병, 뿌리썩음병 등이 나타나므로 물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여름철 고온건조기에는 응애발생이 많으므로 발생초기(앞에 2~3 마리의 응애가 보일 때) 응애약을 살포하여 준다.

